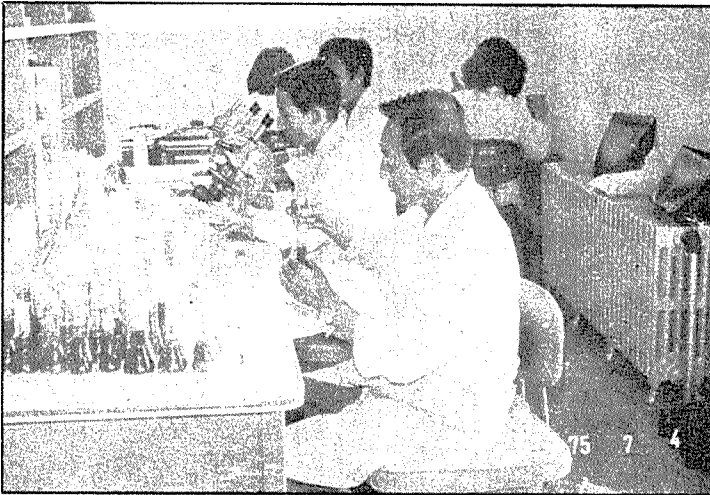


기생충 사업의 前進基地

서울지부 검사소



기생충 검사에 열중하고 있는 서울지부 검사소 직원들. 현재 34노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도 검사 직원들이 한시도 쉬는 사이없이 기생충 색출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의 기생충예방사업의 전진기지인 기형 서울지부를 기자가 찾은 것은 피약뱀디 기승을 부리는 末伏 다음날—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인류공동의 적인 기생충의 충란(虫卵)을 찾는 검사원(検査員)의 생활에는 영일(寧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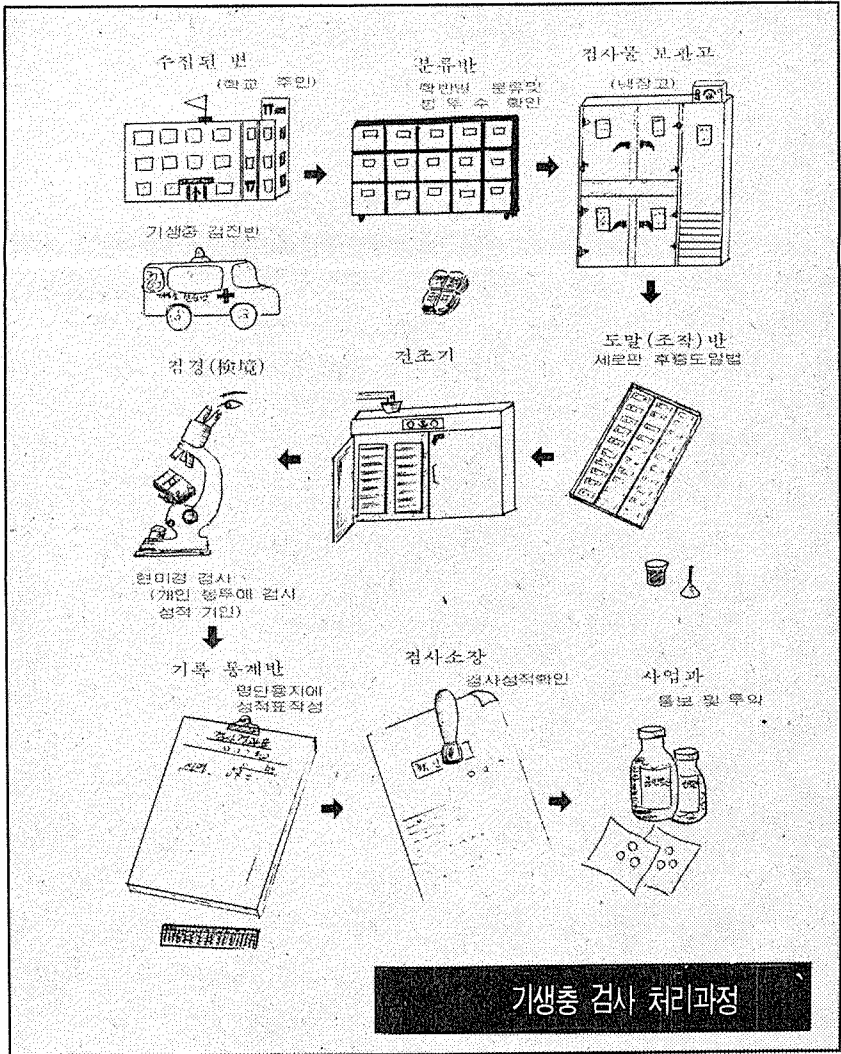
혜화동 로-타리의 시원한 분수와는 대조적으로 검사실의 악취(惡臭)에는 얼굴이 찡그려진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검사원의 모습은 차라리 성스럽기조차 한 것은

인류건강을 위한 인술(仁術)의 첨단역(尖端役)인 때문일까? 심형수 서울지부 검사소장은 땀에 젖은 까운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반가히 맞아 준다.

—우선 독자들이 알기쉽게 검사소의 하는일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검사소에서 하는일은 우선 기생충박멸사업에 필요한 기생충검사업무, 조사연구사업등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기생충 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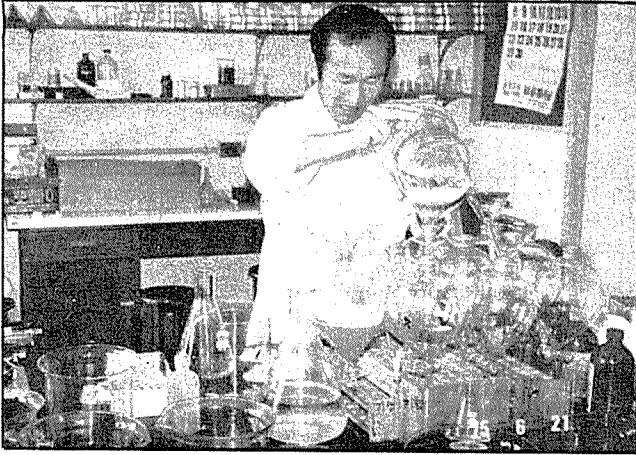


여 역학조사(疫學調査)약효측정(藥效測定)채소검사, 간디스토마 중간숙주조사, 등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원의 적정화가 필요한데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각 시·도(市·道)에 기협지부가 있고 지부안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부는 지부장 이외에李贊사무국장이하 검사소에는 소장 1명, 관리의사 1명, 검사기사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각



채소의 기생충 부작상태를 조사하는
 검사소 요원.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기생충의 생태를 규명하고 기생충 방
 멸대책의 장기자매를 제고한다.

구 보건소에 파견검사기사 11명이
 있어 구별(區別)로도 기생충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기구의 하나인 검사과
 정은 어떠한 경로를 밟아 검사에 임(臨) 하
 고 있습니까?

우선 수집요원(蒐集要員)이 있습
 니다. 각 학교등 수집대상자에게서
 가검물(可檢物)인 인분을 모읍니다.
 일단모이면 분류반(分類班)이 있어
 분류해서 냉장고에 넣읍니다.

다음엔 도말(塗抹=스라이드 그
 라스에 검사물을 바르는 과정)을 합
 니다.

또 집단검진에는 조작반(造作班)
 이 있습니다.

이런다음 경검(鏡檢=현미경으로
 보는과정)을 해서 판독(判讀)을 한
 다음 결과표를 작성, 사업과에 넘
 기면서 기생충이 있는 사람에게에는
 비로서 투약과정(投藥過程)을 밟게
 됩니다.

—검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요사업 계획
 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학도검변사업(學
 徒檢便事業)이 있습니다.

금년도 춘계(春季)사업도 초중고
 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약 62만명
 에 달하는 학생에 대하여 검변을하
 고 회충 또는 12지장충감염자 에를
 전원 무료로 투약했습니다. 매년 춘
 ·추 두번의 검변및 투약을 하는데
 년 120만명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부분).

—혹시 검사과정의 애로점이랄까 맞출할 사
 정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털어놓으시죠.

사실말이지만 조금전 들어오실때
 나는 뱀새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1주일정도는 정말 악취가 나서 못
 배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아무
 령지도 않게됩니다. 국민보건을 위
 한다는 일념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
 죠.

검사물 채취과정에서의 이야기인데 일반 시민이나 학생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닐종이에 싸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종이에 조금 싸가지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과정에서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검사물 채취(採取) 요령은 우리 협회에서 만든 채변(採便) 봉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봉투의 이면(뒷면)에 채취 요령이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이나 학생이 검변을 희망할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춘·추계검변이 있습니다. 우리 기협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거기에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수수료는 학생 1인당 25원 입니다. 시민여러분은 실비와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여러분의 기관이므로 많이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 기생충 보유가 확인됐을 때는 회충과 채독벌레의 구충(驅虫) 약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검사후 특수충난(特殊虫卵)(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요충, 편충 등) 보유자는 우선 학교등에 통보, 각지부 상담실에서 실비(実費)로 치료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부의 특수성이랄까, 다른지부에 비해서 자랑하고 싶은점이 있다면 어떤것을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서울지부의 특성은 기생충 상담소(相談所)의 설치겠지요.

이곳에는 관리의사가 일반시민의 기생충 상담은 물론 모든건강 상담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 산업장등에도 찾아가 계몽을 벌려 많은 치료성과를 거둔 점입니다.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몽과 치료에 임한다는 것이겠지요.

—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데 간혹 오관(誤判)이 나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관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간디스토마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을 걸려있다고 통보했을 때 그 학부모는 놀라서 다른 의료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것입니다. 그럴경우 간디스토마에 걸려있지 않다는 판정이 나오면 우리협회의 공신력(公信用)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결코 단 1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수가 없습니다.

× ×

힘주어 말하는 심 소장의 얼굴에는 국민보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기쁨을 느낄수 있었다. 며칠전에도 붕어등을 잡으러 서울 근교를 돌았다는 심소장은 근래에 만든 표본을 들어보이면서 웃음을 보였다.

여사무원 2명이외엔 전부 가두 무료검진과 계몽에 나가 혼자서 일당백을 하고 있노라고 꺾꺾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